여야 예산안처리 强대强… 대격돌 예고

"강행처리 불사" VS "4대강 중단 장외투쟁"

한미 FTA인준 놓고 연말정국 새 복병으로

309조6000억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이번주에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밟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여당의 강행처리 시도시 실력저지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예결위 계수소위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부분은 4대강 예산. 여야간 이견으로 국토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의 4대강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만큼 여야는 계수소위에서 4대강 사업 각 항목의 삭감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수준인 3000억원 안팎에서 삭감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포함, 6조7000억원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 및 지원대책과 관련한 예산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합의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예고한 대로 '5일 계수조정 작업 종료→6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처리→9일 본회의서 예산안 통과'라는 시간표에 따라 속도전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를 갖고, 북한의 포격 도발과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 튼튼한 안보망을 갖추기 위해서 새해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강행처리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예산 수정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수정안을 올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28건의 예산부수법안 중 단 한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무조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 강행처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실력저지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예결위 의사일정에는 합의해줬으나 예산안 처리시점까지 합의한 것은 아닌 만큼 충실하게 예산심사를 진행한 뒤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서울광장에서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4대강 공사 중단과 2011년 예산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원내·외에서 투-트랙 투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예산심의에 공백이 있었던 만큼 충분한 심의를 더 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강행한다면 물리적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로 예산안의 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일단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15일을 데드라인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공사 중단과 2011년 예산저지 범국민대회'에서 손학규, 박지원, 정세균, 정동영 등 야당 인사들과 시민단체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전선 광주~ 순천 복선화사업 "2015년 이전 신규 사업에 포함을"

국토부 "타당성 낮다" 2020년 이후 사업 가닥

정부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지만 경전선 광주~순천 복선화 사업은 '2015년 이전에 착수하는 신규 사업'에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선 광주~순천 복선화 사업에 대해 2020년 이후,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타당성이 낮아 광주~순천 복선화 사업은 2020년 이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전선 광주~순천 복선화 사업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상징적인 사업인데다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함으로써 광주·전남 경제의 새로운 동맥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순천 간 철로가 노후화하면서 광주지역 수출입 화물이 부산항과 광양항으로 이동시, 대전과 익산을 우회해 경부선과 전라선을 이용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광주·전남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해안 시대를 연다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광주~순천 복선화 사업을 2015년 이전 착수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광주~순천 구간의 복선화 사업이 2020년 이후로 지연된다면 동순천~광양(91%), 진주~삼랑진(75%), 광양~진주(21%) 등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경전선 복선화 사업은 '반쪽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고속철도 구축망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천안~조치원, 신창~대야, 원주~여주 구간 등은 2015년 이전 착수 사업으로, 춘천~속초, 청주~제천, 김천~거제 등은 2020년 이전 착수 사업으로 선정된 반면, 호남권과 동남권 간의 광역경제권을 연결하는 간선 철도망인 광주~순천 구간의 복선화가 2020년 이후로 미뤄진다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은 물론 노선의 중요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전선 복선화 계획 지역화합 위한 결단을"

한나라 이정현 의원

"광주~순천 복선 전철화 사업이 '비 내리는 호남선'의 재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전선은 말 그대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철로"라며 "특히, 광주~순천 구간의 복선 전철화 사업은 광주와 부산을 잇는 핵심 철로라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만 따지기 보다는 정치 및 사회적 측면을 고려, 정부가 2015년 이전에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인 이 의원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개통된 철로가 아직까지 그대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은 전남의 서글픈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화합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장관을 직접 만나는 등 광주 송정역의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선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 의원은 "과거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당시, 왜 지역 철도망에 신경 쓰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한 뒤 "이제라도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북관계 해답은 햇볕정책"

광주 온 손학규 "연평도·서해5도 군사요새화 안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일 "남북관계의 해답은 햇볕정책이고, 이는 오랫동안 지지해온 소신"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연평도와 서해 5도에 각종 무기를 투입하고, 군사요새화 하게 되면 세계적인 분쟁지역이 될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10·4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서해지역을 평화지대로, (남북한) 공동어로 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격이 있으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서 즉각 강력 대응해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당면과제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6자회담을 통해 남북대화의 준비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상태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 3년이 지났는데도 연평도 사태 책임을 민주정부 10년, 햇볕정책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파괴하는 군사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하는 햇볕정책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햇볕정책은 오랫동안 지지해 온 소신이고,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을 때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라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햇볕정책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존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켰다면, 개성공단이 커지고, 이번 연평도 사건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가기를 제안하며, 서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 민생민주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한미 FTA 타결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굴욕적 협상으로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포폰 사찰 국정조사 요구와 4대 강 예산을 민생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軍 연평도 사격훈련 늦춰질 듯

美 '신중한 결정' 요청… 탈북자단체 "北 핵탄두 수중무기 개발중"

북한이 5일 남한의 해상사격훈련 재개 계획 및 연내 연합훈련 추가 실시를 위한 한미간 협의 등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하고 나서,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는 이날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면서 "괴뢰들의 도발적 광란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통제 불능의 극한상황으로 치달아 오르고 있고 북남 사이에 전면전쟁이 터지면 조선반도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김관진 신임 장관의 취임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연평도 사격훈련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군의 사격훈련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미국이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시점은 김 장관이 연평도의 전력증강 추이와 주민 안전문제,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탄두를 쓰는 수중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가 5일 밝혔다.

'평안북도 간부'는 이 단체에 "2009년 3월부터 (노동당 군수공업부) 131 지도국 산하의 108연구소에서 핵 어뢰와 핵 기뢰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핵 기뢰는 기술적으로 완성단계에 있고 핵 어뢰는 2012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온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숙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숙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社團法人 星谷傳統文化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作名·鑑定專門哲學院 010-7671-5623
위 치 : 동구 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